

## 심곡서원 조영의 변화에 대한 고찰

### Research for Changing of Simgok Seowon's Arrangement

심 준 용\*

Sim, Joon-Yong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김 왕 직

Kim, Wang-Jik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Abstract

Simgok Seowon is the commemorative shrine and academy established for scholar Jo Gwangjo (pen name : Jeongam). The shrine (sangnyangsik) and the east and west dormitories (Dongjae and Seojae) were built in 1636. The lecture hall, Imsimnu Pavilion, Sananggak and Munhyanggak buildings were built successively. Simgok Seowon is the only one that survived through the abolishment of seowon ordered by Regent Heungseon in the 19th century.

The original seowon was renowne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showing the typical lecture hall in front and dormitory at the back (jeondanghujae) layout of the Giho School built in 1650. Two archaeological excavations were conducted in the lecture hall courtyard in 2004 and 2007~2008, which prompted debates the position of the dormitories in respect to the lecture hall, whether the dormitories should be placed in front, or at the back of the lecture hall. Simgok Seowon had been long known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lecture hall in front layout, but the excavations revealed contrasting evidence, suggesting the possibility for a dormitories in front layout.

Recent studies and evidence show that the architecture of Simgok Seowon can be grouped into three phases. The first phase was when the shrine and both dormitories were built to the rear of the lecture hall, the second phase was when the lecture hall, Imsimnu Pavilion, Sananggak and Munhyanggak buildings were built, and lastly the third phase when the east, west dormitories were reconstructed in front of the lecture hall. The large scale construction of Simgok Seowon is related to the education based management of the academy by Doam Yi Jae, and the 17~18th century remains confirmed from the archaeological excavations are evidence of this.

Remains for Imsimnu Pavilion, Sananggak, and Munhyanggak buildings have yet to be confirmed, and spaces to the south and east of the seowon are unidentifi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vestigations and research for the unexcavated spaces of the seowon, to conduct in-depth studies and for the effective adaptive re-use of the seowon.

주제어 : 심곡서원, 동재, 서재, 기호학과, 전당후재, 전재후당, 이재

Keywords : Simgok Seowon, Dongjae, Seojae, Giho School, Jeondanghujae, Jeonjaehudang, Yi Jae

#### 1. 서 론

심곡서원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정암 조광조(1482~1519)를 배향하는 서원이다. 1605년에 건립된 심곡서원은 1636년에 상량식이 거행된 사우와 동서재부터 건

축되고 강당(講堂), 임심루(臨深樓), 산양각(山仰閣), 문향각(聞香閣)이 차례로 증축되었다. 조광조를 배향하는 서

\* Corresponding Author : wnsyd@naver.com

1) 기호철, 「문헌으로 본 심곡서원」(A&A문화연구소 편, 『심곡서원의 가치와 활용방안』), 용인시·A&A문화연구소, 2014, 10쪽; 2010년 6월 서원을 중수할 때에 사우 어칸 종도리장여에서 상량문 묵서(墨書)가 발견되었는데, “진신장보 40여 인이 협력하여 중건을 도모하여 팔방에 급히 글을 보내니 많은 재물과 인력이 운집하였다. 공장이 모두 모여 승정 병자년(1636, 인조14) 5월에 상량식을 했다”라고 쓰여 있었다.

원은 17개소가 확인되고 있으나,<sup>2)</sup>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시에는 심곡서원만 유지되었다.

현재의 심곡서원은 사당, 고직사와 연결된 치사재,<sup>3)</sup> 장서각, 강당, 동서재, 홍살문, 연지, 교육관(산양재),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모습은 근대 이후에 조성된 것이다. 기존의 심곡서원은 기호학파의 서원으로 1650년에 건립된 전당후재형의 배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원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이후 2004년(1차), 2007~2008년(2차)에 있었던 강당 앞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이후 동서재를 건축하면서 심곡서원의 공간 구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의 핵심은 동서재의 위치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는 전당후당 혹은 전당후재의 공간 구성에 대한 것이었다. 전당후재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알려졌던 심곡서원에 대하여 발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전당후당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다시 이를 반박하는 논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심곡서원의 공간 구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연구되었던 논의들을 먼저 살펴보고 심곡서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던 ‘교육 기능’과 최근에 발견된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기호철, 위의 글, 4쪽; 이극익(李育翊, 1736~1806)이 1776년 무렵에 정리한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사전전고(祀典典故)』에서 조광조가 배향된 서원을 정리하니 다음과 같았다.

지역	명칭	건립	사액	배향	비고
楊州	道峯書院	1573	1613	조광조, 宋時烈	寧國寺 터
龍仁	深谷書院	1650	1650	조광조, 梁彭孫	건립시기 오류
楊根	迷源書院	1661		조광조, 金湜, 金埴, 南彦經, 李濟臣	
牙山	仁山書院	1610		金宏弼, 조광조, 鄭汝昌, 李彦迪, 李滉, 奇遵, 李之菡, 洪可臣, 李德敏, 朴知誠	
溫陽	靜退書院	1634		조광조, 李滉, 孟希道, 洪可臣	
羅州	景賢書院	1583	1607	金宏弼, 鄭汝昌, 조광조, 李彦迪, 李滉, 金誠一	
礪山	竹林書院	1626		조광조, 李滉, 李珥, 金長生, 成渾, 宋時烈	
綾州	竹樹書院	1570	1594	조광조, 梁彭孫	
松禾	道東書院	1617	1639	朱子, 조광조, 李滉, 李珥	
文化	鳳崗書院	1584	1639	朱子, 조광조, 李滉, 李珥	
信川	正院書院	1580	1671	朱子, 조광조, 李滉, 李珥	
海州	紹賢書院	1586	1671	朱子, 조광조, 李滉, 李珥, 成渾, 金長生, 宋時烈	
熙川	象賢書院	1576	1604	金宏弼, 조광조	兩賢祠
寧邊	藥峯書院	1688	1707	조광조	
咸興	雲田書院	1607		鄭夢周, 조광조, 李滉, 李珥, 成渾, 宋時烈, 趙憲, 閔鼎重	
永興	興賢書院	1612		鄭夢周, 조광조, 李繼孫	
定平	望德書院	1636		鄭夢周, 조광조, 金尙憲, 趙翼, 閔鼎重	

3) 고직사와 치사재는 철거되어 2016년 현재 발굴조사 중이며, 복원될 예정이다.

## 2. 심곡서원의 조영에 대한 기존 연구

### 2-1. 전당후당 배치로 보는 의견

심곡서원은 강당 중심의 전형에서 벗어나 전당후재의 배치형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원으로 해석되거나,<sup>4)</sup> 기호 지역에 분포한 기호학파의 서원 배치로 분류하기도 하였고,<sup>5)</sup> 서원남설기에 사묘 이외의 다른 건물들의 구성은 일정한 형식을 갖지 않고 편의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거나 생략된 서원<sup>6)</sup>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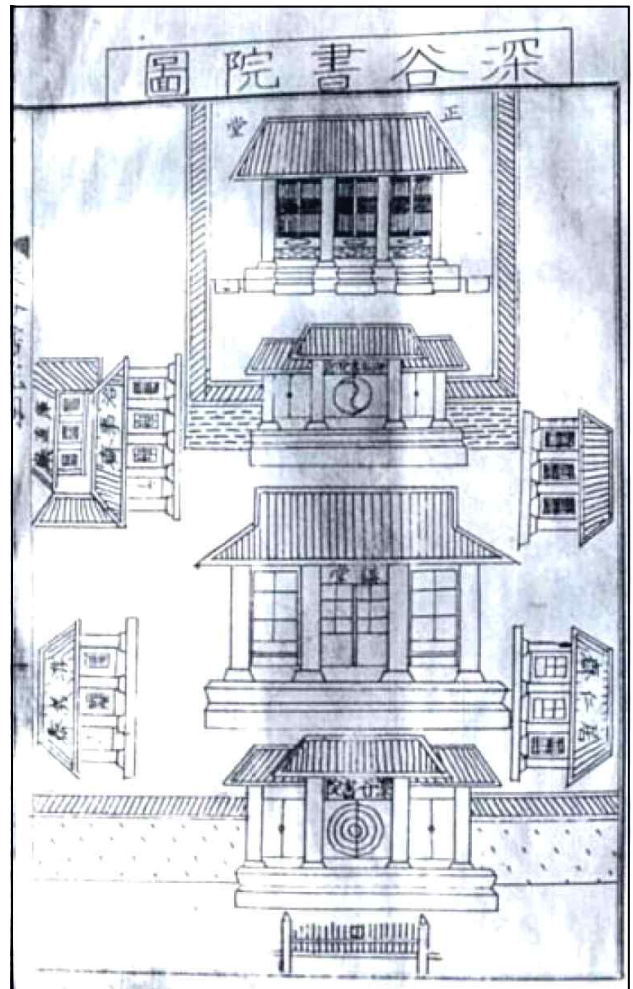


그림 1. 「심곡서원도」 (이승연·이상해, 2010)

4) 이상해, 『서원』, 열화당, 151·360쪽, 2004; 김은중·주남철,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관한 연구(Ⅰ)」, 건축, 29권, 2호, 1985; 김은중·주남철, 「서원건축의 배치유형 및 변천추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6호, 1991

5) 손봉균·이희봉, 「사림의 학파당쟁을 통해 본 서원건축의 재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계획계), 24권, 1호, 2004; 이희봉·손봉균, 「조선시대 사림의 서원건축 재해석: 기호학파 서원의 가치부여」, 건축역사연구, 16권, 6호, 2007

6) 김동욱, 「경기도 지역 서원의 건축특성」(경기대학교 소성학술연구원 편, 『경기지역의 서원』), 2004, 89쪽



그림 2. 1954년 심곡서원 (이승연·이상해,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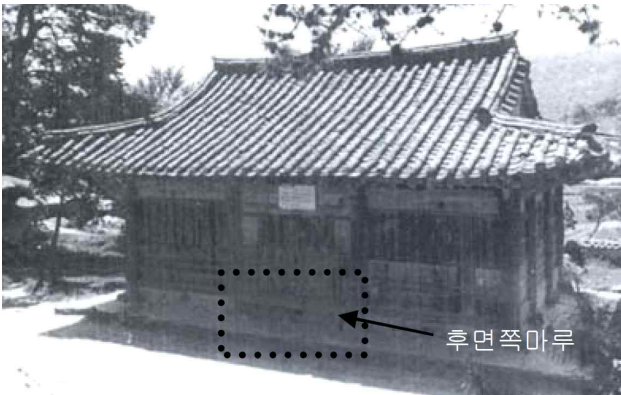


그림 3. 보수 전 일소당 후면 (이승연·이상해, 2010)



그림 4. 보수 후 일소당 후면 (이승연·이상해, 2010)

이에 대하여 이승연·이상해(2010)7)는 발굴조사의 성과와 「심곡서원도」를 바탕으로 심곡서원 동서재의 위치가 기존의 주장(전당후재형)과는 달리 전재후당형 배치를 한 서원으로 보았다. 일소당(현 강당) 전면 일부 지역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17~18세기 건물지를 옛 강당지와

7) 이승연·이상해, 「심곡서원의 조영과정과 배치에 관한 연구 -사료 및 발굴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19권, 3호, 2010

동·서재지, 담장지의 기초부와 기단석렬 일부로 보았다. 1974년 보수정비공사 당시 발견된 「심곡서원도」 및 보수 전·후의 사진을 자료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진 자료를 통하여 일제강점기에 재축된 것으로 보이는 일소당에는 전면에만 계단이 있었고, 1974년 보수 후에는 후면에도 계단이 놓이게 됨을 전당후재형 배치의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서원 배치가 나오게 된 데에는 현재 위치에 심곡서원이 조영되던 시점이 선행 연구에서 이야기되어 온 서원남설기(1675~1741)보다 앞선 시기에 중창된 것으로, 강당 중심의 서원건축 성립시기(1568~1674)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중창 당시 정당만 증건되고 강당과 여타의 건물들이 이후 시간이 지난 뒤에 차례로 건립된 데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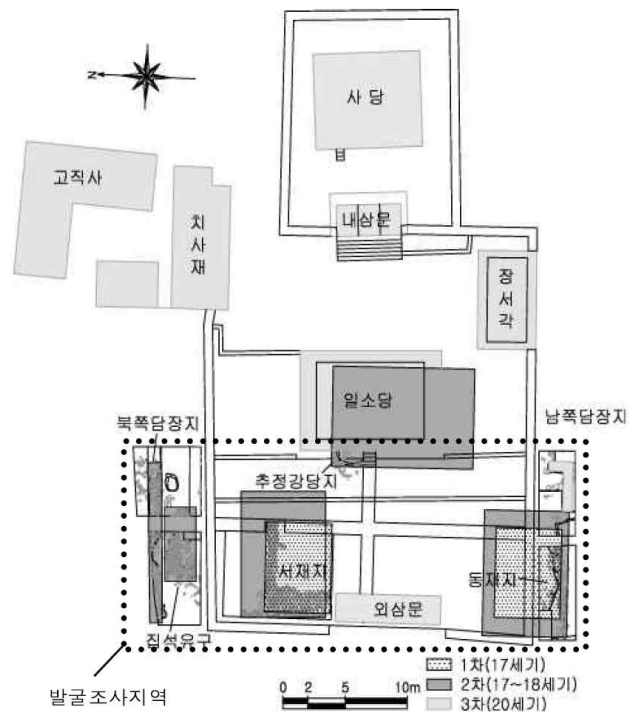


그림 5. 심곡서원 배치변천 추정안 (이승연·이상해, 2010)



그림 6. 심곡서원 사당 (저자 촬영)



그림 7. 심곡서원 강당 (저자 촬영)



그림 11. 심곡서원 치사재 (『심곡서원 사적지정 신청보고서』, 2014)



그림 8. 심곡서원 동재 (『심곡서원 사적지정 신청보고서』, 2014)



그림 9. 심곡서원 서재 (『심곡서원 사적지정 신청보고서』, 2014)



그림 10. 심곡서원 장서각 (『심곡서원 사적지정 신청보고서』, 2014)

## 2-2. 전당후재 배치로 보는 의견

이승연·이상해(2010)의 주장에 대하여 이희봉(2010)<sup>8)</sup>은 2002년에 발행된 구전된 내용이 담긴 『심곡서원지』 연혁의 내용<sup>9)</sup>과 민병승의 『심곡서원 증건기』(1935)의 내용을 근거로, 사액 받을 당시의 심곡서원은 사당과 동·서재만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동·서재가 복원된 동·서재의 위치라고 생각할 수 없고, 현재의 장서각과 치사재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확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심곡서원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충렬서원이 전당후재형, 서울 인근에서 조광조를 모신 또 다른 서원인 도봉서원 역시 전당후재형임을 근거로 하여 같은 인물을 모시는 심곡서원이 앞의 서원을 참조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서원지와 소설 『유림』의 예를 들어 심곡서원의 치사재(治事齋)를 서재로 보았다.

한편, 김왕직(2014)<sup>10)</sup>은 “전당후재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현재의 장서각과 치사재가 원래 동서재이며 현재 복원된 동·서재는 후에 증축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발굴을 중심으로 한 쪽에서는 현재 복원된 동서재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며 그렇다면 심곡서원은 처음부터 전당후당형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와같이 기호학파의 서원 특성을 반영하여 전당후재형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의 모든 서원이 전당후재형은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 논리를 심곡서원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전면적인 발굴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8) 이희봉, 「논문 “심곡서원 조영과정과 배치에 관한 연구” 및 마구잡이성 복원에 대한 토론」, 건축역사연구, 19권, 4호, 2010; 이희봉, 「심곡서원 조영 단계별 원 배치 추정」, 건축역사연구, 19권, 5호, 2010

9) 심곡서원, 『심곡서원지』, 2002, 71~72쪽; 규모는 사우(사당)3칸 동·서재 3칸, 사우는 기와로 동·서재는 초가로 하였다. 그 후 기와가 새고 초가가 견히는 등 풍화를 겪어 유사 손탁이 옮겨져 강당을 세웠다. 점차 증설하여 정당 좌하에 연지(蓮池)가 있고 연지 위에 별당인 산양재를 지었다. 별당 아래에 임심루, 연지 남쪽에 문향각을 세웠으나 어느 때 황폐해졌는지 알 수 없으며 지금은 모두 없어졌다.

10) 김왕직, 「건축으로 본 심곡서원」(A&A문화연구소 편, 『심곡서원의 가치와 활용방안』), 용인시·A&A문화연구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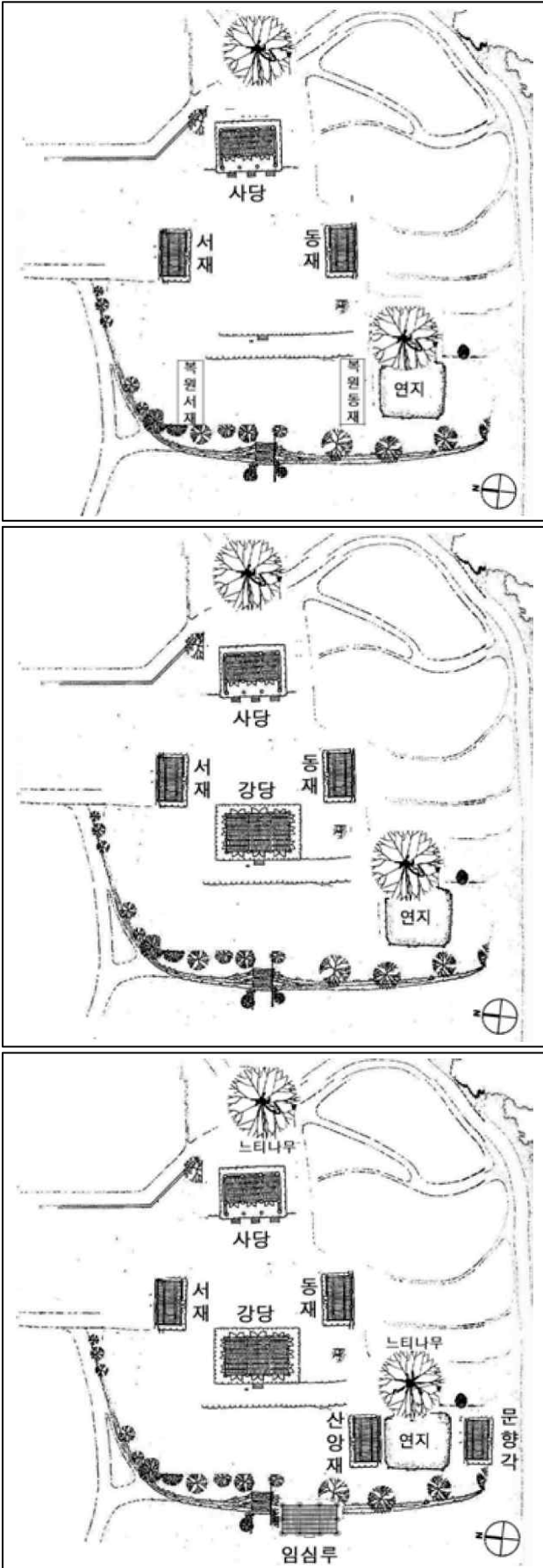


그림 12. 심곡서원 조영 단계별 원 배치 추정도 (이희봉, 2010)



그림 13. 심곡서원 현재 모습 (항공사진)

김동욱(2015)<sup>11)</sup>은 같은 조광조를 배향하면서 유사한 원규를 갖추고 있던 심곡서원보다 앞서 조영된 도봉서원에 대하여 “도봉서원은 사당 중문 앞에 마당이 있고 마당 좌우에는 동재와 서재가 대칭으로 놓여 있었으며, 강당은 마당 남쪽에 놓이고 강당 앞에도 약간의 마당이 갖추어져 있는 모습의 건물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3. 심곡서원 조영에 대한 분석

심곡서원 조영과 관련된 자료는 크게 문헌자료, 상량문 등이 남겨져 있는 부재, 발굴조사 성과 등이 있다. 심곡서원의 문헌자료는 장서각에 다수의 도서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1987년과 1993년에 많은 자료를 도난당해 현재에는 기문들과 20세기 이후에 작성된 문헌들이 대부분이다.

#### 3-1. 건립기(1기)

심곡서원의 위치는 정암 선생의 묘소가 포함되어 있는 한양 조씨의 선영이 있는 지역이었다. 또한, 정암 선생이 선부군 삼년상을 마친 1442년(세종24)에 이곳에 초

11) 김동욱, 「원규에 나타난 묘정 활용으로 본 도봉서원」, 『도봉서원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2015, 37쪽

## 22 논문

가집 몇 칸을 지어 살던 지역이기도 하다.<sup>12)</sup> 정암 선생은 포은 선생과 함께 배향되다가 1605년 현재의 심곡서원 인근에 서원이 건립되면서 이전되었다.

심곡서원은 서향하고 있으며, 이는 방위보다는 지형을 우선한 것이었다.



그림 14. 서향하고 있는 심곡서원 (항공사진)

1605년 건립 이후 1631년~1636년 사이에 훼손되었으며,<sup>13)</sup> 1636년에 사우를 준공하였다.<sup>14)</sup> 1625년<sup>15)</sup>, 1631년에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윤희를 얻지 못하다가<sup>16)</sup> 1649년에 사액을 받았으며,<sup>17)</sup> 1661년에 강당을 완공

12) 기호철, 앞의 글, 5쪽

13) 1631년에 진사 유문서 등이 사액을 요청한 기록이 『인조실록』에 남겨져 있다. 2010년 사우 중수에서 발견된 상량문 목서엔 1636년 5월에 상량식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14) 심곡서원, 『심곡서원 사적지정 신청보고서』, 2014.7, 53쪽; “摺紳章布四十餘人 協謀重建 馳文八方 財力雲集 工匠咸聚 崇禎丙子五月上樑.”

15)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인조 3년 을축 10월 12일(정해); “龍仁之深谷里, 卽其先壟也. 手植之松柏, 居廬之舊址, 宛然如昨日, 終爲體魄之所藏, 臣等追慕遺風, 不量綿力, 俎豆-缺二行-祠宇者, 輕重自別, 而猶未蒙朝廷賜額之恩, 無以聳動儒林, 振起文風, 豈徒臣等尊奉之意未彰?”

16) 『인조실록』, 9년 9월 4일(을해); 進士柳文瑞等上疏, 以龍仁縣深谷里趙光祖書院, 請賜額. 該曹啓曰: “諸儒願賜書院之額, 其尊賢衛道之誠, 可嘉. 依道峯, 竹樹例, 特降扁額宜當.” 答曰: “三處賜額似過, 姑徐.” 其後文瑞等又上疏曰: 鄭夢周書院, 有崧陽, 臨臯, 忠烈三處, 而並賜額. 李滉書院, 有伊山, 陶山, 廬江三處, 而亦皆賜額. 苟有書院, 則必賜扁額, 此其前例, 豈以過多爲嫌? 上亦不許.

하였다.<sup>18)</sup>

한편 강당 적심에서 발견된 상량문 목서 기록(1657)으로 심곡서원 내 건축물이 1657년에 상량식을 거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sup>19)</sup> 사우가 1636년에 건축되었고, 1661년에 강당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1657년에 건립된 건축물은 사우를 관리하는 고직사로 추정할 수 있으며, 위치는 최근까지 고직사로 활용되다가 2016년에 철거된 치사재의 복원으로 추정된다. 강당이 건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강당의 서편(정면)에 건축될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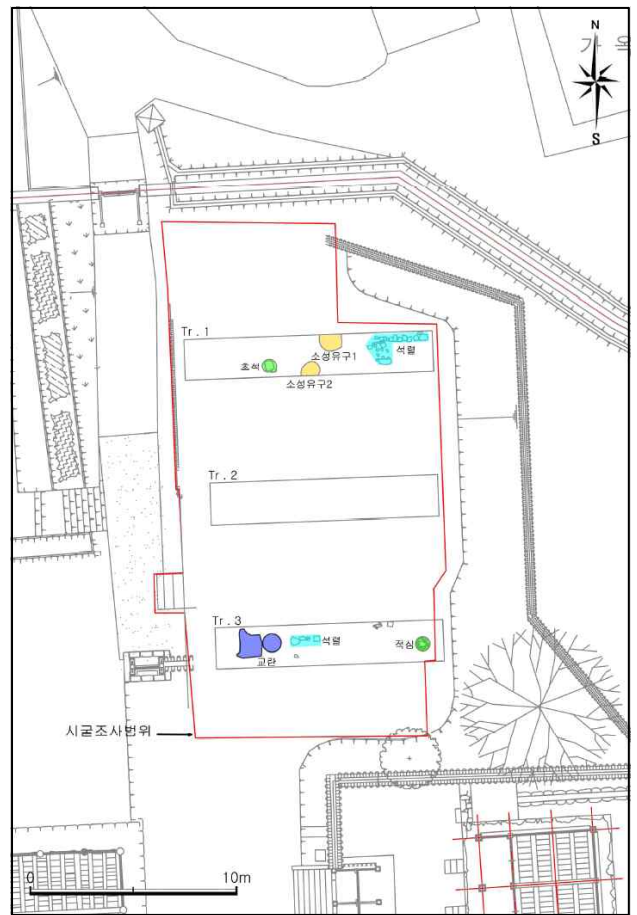


그림 15. 치사재·고직사 시굴조사 현황도 (해안문화재연구원, 2016.8.)

17) 『효종실록』, 즉위년 기축(1649년) 10월 22일(정미); 용인(龍仁) 유생(儒生) 심수경(沈壽卿) 등이 상소하여 조광조(趙光祖)의 서원(書院)에 사액(賜額)하기를 청하니, 허락하였다.

18) 송시열(宋時烈), 「용인현심곡서원강당기(龍仁縣深谷書院講堂記)」, 『송자대전(宋子大全)』, 卷143; 조정에서 이미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토록 했으니, 그를 보답함이 매우 지극하였다. 그런데 서울과 외방 선비들이 또 그의 무덤 곁에 사당을 세우고 신위를 봉안했으나, 강당(講堂)은 미처 짓지 못하였다가 그 후에 장보와 진신이 다시 의논하고 재목(材木)을 모아, 기해년(1659, 효종10) 3월에 시작해서 신축년(1661, 현종2) 2월에 준공하였다.

19) 심곡서원, 앞의 글, 2014.7, 55쪽; “崇禎戊辰辰後丁酉四月二十七日上樑山長金孝建 都有司宋復吉[宋浚吉] 掌議張雄燦 齋有司李瑞奎 側有司金鎔 木手安宜謙 必携 金金石”

초기 심곡서원의 동서재는 구전자료를 근거로 2002년에 제작된 『심곡서원지』에 강당이 건립되는 1657년에 이미 존재했을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 시기의 동서재는 강당이 세워지기 전에 건축되므로 현재의 치사재·고직사 및 장서각이 위치하고 있는 사당과 강당의 사이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 있었던 시굴조사에서 치사재·고직사 위치에서 이전 시기의 석렬, 초석, 적심 등 건축의 흔적이 확인되었다.<sup>20)</sup>

### 3-2. 발전기(2기)

1934년에 민병승(閔丙承)에 의해 작성된 『심곡서원 중건기(重建記)』는 많은 문헌자료가 소실되기 전에 작성된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영릉(寧陵:孝宗의 陵) 원년(元年) 경인년(庚寅年, 1650)에 서원(書院)을 건립하고 사액(賜額)을 받았다. 이어서 강당(講堂)과 임심루(臨深樓)를 세우고, 산양각(山仰閣)·문향각(聞香閣)을 차례로 증축(增築)하였다”고 하여 임심루와 산양각, 문향각의 증축을 언급하고 있다.

임심루는 명칭상 현재의 외삼문의 역할을 했던 문루로 추정되는데, 이는 같은 정암 선생을 모셨던 도봉서원(16세기 후반 건축), 심곡서원 전에 함께 모셨던 포은 정몽주를 모신 인근의 충렬서원(16세기 후반 건축)의 사례에서 문루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1934년 민병승의 『심곡서원 중건기』, 2002년에 발간된 『심곡서원지』에서 전해지는<sup>21)</sup> 산양재(산양각으로도 전해짐)와 문향각은 연지를 중심으로 조영된 별당건축으로 전하는데, 현재로서는 존재 여부 및 위치를 확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발굴조사 결과, 토층 및 유구,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17~18세기에 한 차례의 중건이 이루어진 건물지가 현재의 동재지에서 확인되었다.<sup>22)</sup> 이곳은 1901년에 동재가 건립된 지역으로 17~18세기라면 산양재 혹은 문향루의 건축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향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참고로 서재지에서는 17~18세기의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1725년 경기 유생 김인백(金仁白) 등이 상소하여 정개칭을 배향한 자산서원(紫山書院)을 훼손하고서 나주에 있던 그 서원의 토지를 심곡서원과 충렬서원에 떼어주고 면세해 주는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sup>23)</sup>는 기록이

있는데 18세기 초에 심곡서원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자산을 확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기호철은 이 기록을 근거로 “서인(西人)이 용인 지역에 그 세력을 확대하는 데에 심곡서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으며,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기 이전에는 윤선거(尹宣舉, 1610~1669)와 윤拯(尹拯, 1629~1714)도 심곡서원을 찾아 정암 선생을 참알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심곡서원은 서인 노론계의 중요한 서원의 하나였던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고 하였다.<sup>24)</sup>

사액을 받은 이후, 규모가 확대되던 심곡서원은 도암이재(1680~1746)가 원장으로 취임하는 1742년을 전후하여 또 한 번 발전한다.

도암은 제향 기능만 중시하였던 당시 서원의 현실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sup>25)</sup> 심곡서원이 그 모델이 되었다.

그는 원장에 취임한 후, 「심곡서원학규(深谷書院學規)」를 제정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범례를 제시하였다. 18세기에는 ‘강회 중심의 서원 교육’이라고 할 만큼 학규 중 강회 관련 내용이 증가하고 강규 또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데, 「심곡서원학규」는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학규 중 하나이다.<sup>26)</sup>

특진관 윤양래(尹陽來, 1673~1751)가 영조에게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용인 심곡의 조광조 서원은 이재가 그 근처에 살면서 강학에 부지런하니 서원다운 모습을 갖추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고 한다.<sup>27)</sup>

23) 『승정원일기』, 영조 1년 9월 5일(기해); “京畿儒生金仁白等疏曰, 伏以先正臣文忠公鄭夢周, 文正公趙光祖衣冠之藏, 俱在於京畿龍仁縣, 章甫各立祠院, 而爲揭虔藏修之所, 朝家賜額曰忠烈·曰深谷者是也. 兩賢道清, 實爲我東理學之祖, 而此院又在其丘墓之鄉, 則列聖崇報之典, 士林尊奉之儀, 蓋與他院有別矣. 粵在仁廟反正之初, 毀去孽臣鄭介清僭享之院, 而其院所屬田土之在於羅州注乙浦者, 特命移給於忠烈·深谷兩院, 而至孝廟甲午, 又因兩院章甫之疏請, 許其免稅, 兩朝所以優禮先賢, 寵答儒宮之意, 出尋常萬萬, 而兩院享禮之用, 多士之供, 凡百支辦之資, 專靠於此, 自初至今, 官不收租, 已至七十餘年矣. 兩朝所以優禮先賢, 寵答儒宮之意, 出尋常萬萬, 而兩院享禮之用, 多士之供, 凡百支辦之資, 專靠於此, 自初至今, 官不收租, 已至七十餘年矣.”(유생 상소에서 말한 인조 초와 감오년은 착오가 있는 듯하다. 광해군 8년 무안에 세워진 자산서원은 효종8년에 송준길 등의 요청으로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복설과 훼손이 반복되었는데, 숙종 6년과 숙종 28년에도 훼손되었다); 金東洙, 「16~17세기湖南士林의 存在形態에 대한 一考察 -특히 鄭介淸의 門人集團과 紫山書院의 置廢事件을 중심으로 하여-」, 『歷史學研究』, 7호, 1977

24) 기호철, 앞의 글, 19쪽

25) 이재(李穡), 「深谷書院學規」, 『도암집(陶菴集)』, 卷25, 1854; “書院本爲士子羣居講學而設. 而近來游書院者. 但以春秋參祀爲重. 故書院只爲先賢享祀之所. 有其名而無其實. 往往或有居齋者. 而不過習科文而觀雜書. 未見有講習之美. 可勝歎哉. 此後居齋者勿讀異端之書. 又勿做科業文字於齋中. 惟專意於義理之說. 朝夕肄習.”

26) 박종배,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19집, 2호, 2009, 59쪽

27) 『승정원일기』, 영조 17년 4월 12일(병오); “成中曰, 書院之弊, 甚矣.

20) 해안문화재단연구원, 『용인 심곡서원 치사재·고직사 개축공사 관련 발굴조사 자문위원회의 자료집』, 2016.8.

21) 각주 9번 참조.

22) 이승연·이상해, 앞의 글, 80쪽

## 24 논문

### 3-3. 근대기(3기)

2011년 장서각 적심에서는 “1901년 9월 19일 동서재 중수”라는 기록이 확인되었다. 심곡서원과 관련된 20세기 최초의 기록이다.<sup>28)</sup>

이후 확인된 제작연대 미상인 「심곡서원도」가 있는데, 창호 모양이 1954년 문정중학 졸업기념 사진과 같은 것으로 미루어 195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도면을 보면 동서재가 강당 전면에 위치하여, 현재의 심곡서원과 유사한 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곡서원이 초축된 17세기 초부터 20세기까지의 자료를 분석하면 크게 세 시기로 구분이 가능하다. 사당·동재·서재를 중수한 17세기 초반(1기), 강당·임심루·산양각·문향각을 중수한 17세기 후반(2기), 새로운 동재와 서재를 중수한 1901년(3기)으로 구분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심곡서원 조영 자료 요약
- 1605 심곡서원 건립
- 1625 사액을 청하였으나 윤희를 얻지 못함.
- 1631 사액을 청하였으나 윤희를 얻지 못함.
- 1631~1636 훼손
- 1636. 5. 사우를 중수  
이후, 동재·서재 중수
- 1649 사액을 받음.
- 1657. 4. 27. 건물 중수(고직사 추정)
- 1661 봄 강당 중수  
이후, 임심루·산양각·문향각을 차례로 중수
- 1742 도암 이재, 심곡서원 원장 취임
- 1901. 9. 16. 동서재(東西齋) 중수
- 1950(추정) 「심곡서원도」 제작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16세기 후반에 창건된 도봉서원이 있다. 도봉서원 역시 정암 선생을 모시고 있는데, 전면에 강당, 후면에 사우를 두었고, 사우와 강당 사이에는 동·서재를 마련하였다. 얼마 후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도봉서원은 1602년에 침류당, 1608년에 사우 1615년에 침류당 동루(제월루), 강당은 1608년부터 1630년 사이에 중건되었다. 이경미는 침류당이 먼저 중건된 이유로 “도봉서원 중건을 목표로 삼았던 유희경은 일단 소규모로 침류당을 지어 거처로 삼아 도봉서원 중건에 박차를 가했다”고 하였다. 도봉서원은 병자호란시에도 피해를 입었는데

守令若或違拂其意，則不但院中通文之發，碑亦不得立矣。陽來曰，以臣所聞，龍仁深谷趙光祖書院，李緯居其近處，勤於講學，有書院貌樣云矣。”

28) 심곡서원, 앞의 글, 2014.7, 46쪽

데, 이후 강당이 재건되고 존경각, 광풍당이 신축되었다. 1754년의 도봉서원은 사우, 강당, 동재와 서재, 광풍당과 장서각, 침류당과 제월루, 성심루, 영귀문, 계류의 각석, 소광정, 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29)</sup>

결국, 심곡서원보다 조금 일찍 건축된 도봉서원 역시 강당과 사당 사이에 동서재가 배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도봉서원은 초기의 공간 구조를 유지하다가 「서원철폐령」으로 1871년 훼철되었으며, 심곡서원은 1901년에 기존의 공간 구조를 벗어나, 동서재를 강당 전면에 배치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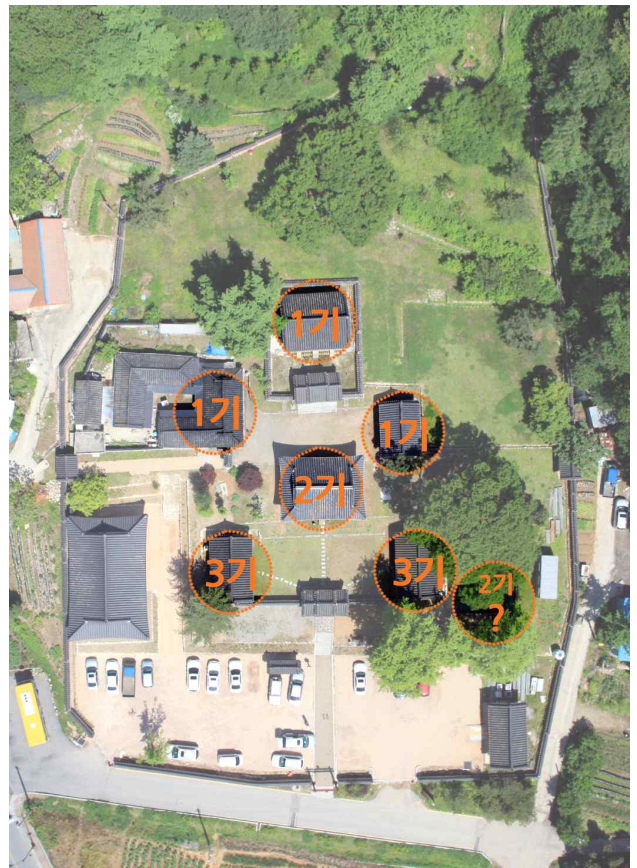


그림 16. 심곡서원 조영 단계

## 4. 결 론

심곡서원은 정암 조광조를 배향하는 서원으로서 1636년에 상량식이 거행된 사우와 동서재부터 건축되고 강당(講堂), 임심루(臨深樓), 산양각(山仰閣), 문향각(聞香閣)이 차례로 증축되었다. 조광조를 배향하는 서원은 17개소가 확인되고 있으나, 홍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시에는 심곡서원만 유지되었다.

29) 이경미, 「도봉행일기로 본 18세기 중반 도봉서원의 건물배치 추론」, 『도봉서원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2015



현재의 심곡서원은 사당, 고직사와 연결된 치사재, 장서각, 강당, 동서재, 홍살문, 연지, 교육관,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모습은 최근에 조성된 것이다. 기존의 심곡서원은 기호학파의 서원으로 1650년에 건립된 전당후재형의 배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원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이후 2004년(1차), 2007~2008년(2차)에 있었던 강당 앞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이후 동서재를 건축하면서 심곡서원의 공간 구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의 핵심은 동서재의 위치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는 전재후당 혹은 전당후재의 공간 구성에 대한 것이었다. 전당후재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알려졌던 심곡서원에 대하여 발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전재후당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다시 이를 반박하는 논의였다.

기존의 연구 성과 및 최근에 발견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심곡서원은 사당과 동서재(강당 배면 좌·우측)가 초축된 1기, 강당과 임심루·산양각·문향각 등이 중창된 2기, 동서재가 중창된 3기(강당 전면 좌·우측)로 구분할 수 있다. 심곡서원의 대규모 조영은 도암 이재 선생과 관련된 ‘교육 중심’ 운영과 연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발굴조사시 확인된 17~18세기의 유물이 이의 근거이다.

하지만 임심루·산양각·문향각 등의 건축이 확인되고 있지 않고, 심곡서원 남편·동편 공간의 용도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심곡서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심곡서원의 미발굴 지역을 추가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이재(李緯), 『深谷書院學規』[『도암집(陶菴集)』, 卷25], 1854
2. 김은중·주남철,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관한 연구(I)』, 건축, 29권, 2호, 1985
3. 김은중·주남철, 『서원건축의 배치유형 및 변천추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6호, 1991
4. 심곡서원, 『심곡서원지』, 2002
5. 이상해, 『서원』, 열화당, 2004
6. 김동욱, 『경기도 지역 서원의 건축특성』(경기대학교 소성학술연구원 편, 『경기지역의 서원』), 2004
7. 손봉균·이희봉, 『사람의 학과당쟁을 통해 본 서원건축의 재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계획계), 24권, 1호, 2004
8. 이희봉·손봉균, 『조선시대 사람의 서원건축 재해석: 기호학과 서원에의 가치부여』, 건축역사연구, 16권, 6호, 2007
9. 이승연·이상해, 『심곡서원의 조영과정과 배치에 관한 연

- 구 -사료 및 발굴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19권, 3호, 2010
10. 이희봉, 『논문 “심곡서원 조영과정과 배치에 관한 연구” 및 마구잡이성 복원에 대한 토론』, 건축역사연구, 19권, 4호, 2010
11. 이희봉, 『심곡서원 조영 단계별 원 배치 추정』, 건축역사연구, 19권, 5호, 2010
12. 심곡서원, 『심곡서원 사적지정 신청보고서』, 2014.7.
13. A&A문화연구소, 『심곡서원의 가치와 활용방안』, 용인시·A&A문화연구소, 2014
14. 김동욱, 『원규에 나타난 묘정 활용으로 본 도봉서원』, 『도봉서원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2015
15. 이경미, 『도봉행일기로 본 18세기 중반 도봉서원의 건물배치 추론』, 『도봉서원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2015
16. A&A문화연구소, 『쉽고 재미있는 용인의 문화유산』, 용인시, 2015
17. 해안문화재연구원, 『용인 심곡서원 치사재·고직사 개축공사 관련 발굴조사 자문위원회의 자료집』, 2016.8.

접수(2016. 6. 13)

수정(1차: 2016. 10. 31)

게재확정(2016. 11. 8)